우리시대 참스승

영북종합고등학교 교장 신 상 호

학생들의 교육수준 높이기 위해 최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창의적 · 특기적 교육 필요

지리적여건상 수복지구·전적지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농촌 면지역으로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하며 주민의 생활이 유동적이다. 교육환경 여건은 각종시설 환경의 개선·확충이 필요하고 전통적 향토문화 결여, 학교 부적응생 다수, 위락 환경 산재, 교사의 장기 근무기피가 특징이다. 학생들의 학력격차 심화 및 기초학력 부진, 입지 교육의 결여, 기본예절 및 질서의식 결여,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이해부족,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생활수준의 차이 및 한부모 가정의 다수등은 영북종합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특수성이다.

영북종합고등학교가 지난해 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교의 특수성 및 교육 과제에서 특수성으로 지적한 내용이다.

이처럼 어려운 교육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로 6년째 영북종합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신상호(58·사진)교장은 "여러가지로 노력한 결과 학생들이 유순해졌으며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났다"며 영북교육의 비전을 밝혔다.

앞으로 좀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 교장은 전입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전학온 학생들에 의해 그동안 공들여온 분위기가 깨질 위험이 있고 흔들려서 다시 공부하지 않는 습관으로 돌아갈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12개 학급을 인가 받았지만 현재 10개 학급만 운영하고 있는 영북종고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찾는 학교로 만들어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신 교장은 교사들에게 수업준비를 철저히 하여 학생들의 교육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 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학생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우물을 파야 한다는 생각으로 포천일고에서 23년을 근무한 후 영북종고에서도 6년차를 맞고 있는 신 교장은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가덕면 행정초, 문의중, 청주농고, 충북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교사로 첫 발령 받은 후 1979년 당시 포천종고에 부임한 이후 2년을 제외하고 줄곧 포천에서만 근무해왔다.

포천일고 축산과를 경쟁력 있는 학과로 육성해 왔으나 세계시장 흐름의 여파로 농업에서 실패한 제자들을 볼 때만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신 교장은 '최선을 다하자'를 좌우명으로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을 지도해 온 보람을 느꼈으나 1995년 정부가 농촌에 40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 후 이를 갚지 못해 빚 때문에 주저앉은 제자들이 많다고 한다.

신 교장은 창의적·특기적인 교육이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한다.

올해 영북종고는 특기적성신장 등 다양한 교육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의 방침에 맞게 따라와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육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교장은 산정호수와 철원간을 연계하는 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해 운천에서 산정호수까지 4km구간에 장미를 식재하는 터널을 만든다면 관광명소로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제안한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주변에 고산식물원이 탄생된 것 또한 제대로 홍보하고 이용하면 의정부나 서울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영북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생의 숫자가 3년동안 300명이 줄어들어 1년에 100명씩 줄어든 셈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 운천에서 떠나고 있다는 증거이며 영북종고가 개방형 학교 신청에서도 제외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신 교장은 올해 영북종고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영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바른 평화통일관 정립교육의 내실화, 교육환경·시설의 현대화 및 개선, 생활의 정서적 안정 및 향토애 교육, 각종 시설의 애용 및 이용의 극대화, 애교·애향심 고취, 인성교육 강화 및 상담지도 활성화, 교육 유해 환경 정화, 복지증진책 강구 및 교직사명감 고취, 수준별 교육의 확대 및 기초학력 향상지도 강화, 실업교육 및 소질·적성 계발, 기본생활 습관의 정착, 교육홍보 기회의 확대 및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한 학부모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 근검절약 교육 및 실업교육 기회 확대, 한부모 가정학생의 실태파악 및 학생상담·가정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삼정초등학교 6학급 입학식

3년 동안 3개 학급 증설로 학교 정상화

3년전까지만 해도 3학급으로 폐교위기설이 나돌던 포천삼정초등학교가 3월2일 1학년 신입생 7명이 입학하면서 정식 6학급이 되었다. 6학급이 되면서 새로 부임한 교사들 또한 특별한 사명감으로 교직에 헌신하고 있는 유능하고 모범적인 교사로 알려져 활기가 넘쳤다. 이날 입학식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신입생 및 교사와 학부모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특히 산정호수 한화콘도 한화봉사단의 학부모체험으로 나선 직원들이 특수학급에 입학하는 신입생 2명의 부모가 되어 입학식을 지켜보는 표정 또한 이채롭다.

한태현 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학교는 즐겁고 재미있는 곳"이라며 "귀여운 1학년 학생 여러분과 유치원 원아들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학생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학부모들에게는 "3년전 까지만 해도 반쪽 학교라 불리는 3학급에서 꾸준히 학생들이 증가하여 4학급, 5학급에서 금년도에는 완전 정상화되어 6학급이 되었다"며 "교육이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바로 여러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입학식에서 재학생들은 신입생들에게 축하 꽃다발과 이름표를 걸어주었으며 교사들은 이날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태극기를 선물로 전달하기도 했다.

마지막 순서는 유치원과 학교 신입생들의 꿈을 적은 풍선을 멀리 날려보내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2004년9월 포천삼정초등학교에 초빙교장으로 부임한 한태현 교장은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특히 삼정골프동호회를 조직하여 지역주민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도 했다. 1개 학급 신설로 교무실을 교실로 사용하게 되어 교사들의 업무공간인 교무실은 비좁은 사택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 교실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포천삼정초등학교 교사들은 비좁은 공간에서도 불편을 감수하며 학생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학교교육의 밝은 내일을 예고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市지원 포천 거주학생 25명 入學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제 3회 입학식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채원석)은 3월3일 오후2시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2007학년도 제3회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입학식에는 초등영재과정 117명과 중등영재과정 173명이 참석했으며 과학영재교육원장의 입학선언에 이어 학생대표 중등물리 심화반 송다영(금오여중 2학년)의 입학선서를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대진대학교 총장 이천수 법학박사의 격려사와 박윤국 포천시장의 축사, 의정부과학고등학교 권기준 교장의 축사를 끝으로 입학식을 마치고 해당학과 주임교수 10명과 조교14명의 인솔 하에 신입생 사전교육이 실시됐다.

기초과정 학생들의 사전교육이 진행되는 시간에 동반하여 참석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의정부과학고등학교 교장의 특별강연과 자녀교육에 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같은 시간에 심화과정 초등학생들은 대진대학교 교무처장 황희숙 교수(철학과)의 특별강연과 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정부과학고등학교 윤재철 교감의 특강이 동시에 진행됐다.

특히 이번 입학식에는 포천거주학생 25명이 포함되었고, 2007학년도는 포천시로부터 영재교육환경 및 여건조성을 위한 특별지원금이 지원되어 우리지역 영재학생에 대한 포천시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학식장에는 지난 1년간의 교육원 교육내용 및 행사내용을 담은 과학영재 소식지(Science Gifted Newsletters) 2호가 배부되어 신입학 학생 및 학부모들이 새로운 교육원에서의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

채원석 과학영재교육원장은 "2005년도에 개원한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학교당국과 참여교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 후에 이곳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 발휘될 것"이라며 "포천시에 특수목적고교(과학고 또는 외고)를 설립하는 것 보다 다른 시에 있는 특목고에 포천 학생이 많이 진학하는 것이 포천시의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변화의 씨앗이 꽃피울 희망 교육

2006 포천교육 만족도 보고서 發刊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최길용)은 포천지역의 특수한 교육여건과 문제를 진단하고 교육현장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교육 수요자들이 만족하는 희망 포천교육을 꽃 피우고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 만족도 조사는 질 높은 교육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많은 교육 정책들이 일선학교의 교실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교육 수요자들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만족도 조사 자료는 포천지역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며, 교육 정책이 목적대로 실천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실효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교육 개선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고치고 다듬으며, 호응도가 높은 정책은 더욱 활성화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실감하며 그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희망 포천교육의 만족도는 크게 교육과정 운영, 생활 및 인성지도, 학부모 교육참여, 교원 전문성 신장, 교원 사기 진작, 교육청 역점 및 특색사업 추진 영역 등 총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했다.

2006년 교육 만족도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이는 학교 교육혁신이 꽃 피운 우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길용 교육장은 발간사에서 "2006 포천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우리 포천교육 가족들은 항상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에 귀를 열고, 충고와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변화의 씨앗으로 꽃 피울 희망 포천교육을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포천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해 포천교육청이 학교교육의 질적 변화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교육공동체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지역발전 위해 敎育界 한마음

영북면 초 · 중 · 고교 상호 협조 다짐

갈수록 학생수가 줄어들고 교육환경이 열악해져 가는 영북면 지역 초·중·고교 교장과 교감, 운영위원장, 원로 교육인등 12명이 3월2일 한 자리에 모여 지역사회 및 학교발전을 위해 상호 정보교환 및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영북초등학교 나병도 교장, 영북중학교 장기문 교장, 영북종합고등학교 신상호 교장과 박동규 전임 영북종합고등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 영북종합고등학교 신상호 교장은 "영북종고와 영북면을 마지막 용광로로 생각하고 자신을 태우는 열의로 최선을 다하여 보다 더 발전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믿어주시고 함께 이끌어 나간다면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하여 영북면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북중학교 장기문 교장은 "오늘 모임이 뜻깊고 영광스러운 자리라 생각되며 우리들이 뜻을 모은다면 영북면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영북초등학교 김선규 교감은 "관내 학교가 서로 연계되어 교육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초등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동규 전임 영북종고 교장은 "영북면은 교육 및 지역적인 여건이 많이 열악하나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 여겨지며, 어려운 때 초·중·고교가 한 자리에 모인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에 초청해준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손영배 영북중학교 운영위원장은 "지역주민으로서 특별히 지원해드릴 것은 없으나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제일 많이 아시는 선생님들이 열성적으로 하고자하는 의욕만 키워주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의 이 자리가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인재육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임영선 영북종합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영북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은사님들의 배움의 힘이 얼마나 큰지 40대가 되어서야 깨달아 만학의 길을 걷고 있으며 베풀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잘하는 학생은 이끌어 주시고 잘못하는 학생은 야단치고 혼을 내 깨우쳐 주셔서 지역의 일꾼으로 키워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서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지역사회 학부모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관내 학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계기마련도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편, 이날 모임은 영북종합고등학교 신상호 교장과 임영선 운영위원장이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5년째 만남을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 함께 공부해요 》

明 長幼之序 ⑯

(장유간의 질서를 밝힘)

謀於長者 할새 必操几杖以從之

니 不辭讓而對非禮也 니라.

모어장자 할새 필조궤장이종지

니 불사양이대비례야 니라.

(几안석궤 杖 지팡이장 從 좇을종 辭 말사 讓 사양할양 謀: 의론함. 궤장: 안석과 지팡이)

"어른에게 문의 (問議) 하려 갈 때에는 반드시 안석과 지팡이를 가지고 간다. 어른이 물을 때 사양하지 않고 대답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어른을 뵈러 갈 때에는 안석과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것은 어른에게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가 아니라.

자제(子弟)된 자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 어른 앞에서는 겸허(謙虛)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어른이 무슨 일 을 물을 때 한 번쯤 사양(辭讓)하는 말이 있는 것이 예의다.

어른에게 대하는 태도뿐 아니라 비록 손아래사람이라 하더라도 겸허하게 대하는 것이 교양 있는 사람의 행동이며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다.

양 주 승 본지 자문위원장

윤종성의 국제비지니스 미국영어

■ 방 문/출장

2. 〈방문예약〉 : (2)

* 그러면, 9시는 어떤지요?

1) 웰, 캔우이메이키랫 나인?

〈Well, can we make it at 9?〉

2) 웰, 하우러바웃랫 나인?

〈Well, how about at 9?〉

3) 웨, 웃나인어클락 비오케이?

〈Well, would 9 O'clock be O.K?〉

* 오후에는 어떠신가요?

1) 하러바웃 썸타임인디애 터눈?

〈How about sometime in the afternoon?〉

2) 왓츠 유어 스케쥴 훠디애 터눈?

〈What's your schedule for the sfternoon?〉

* 좋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니까요

1) 댓스굿, 아이햅나씽인포테큘러

〈That's good, I have nothing in particular.〉

2) 잇소케이, 아임후뤼 인딩 터눈

〈It's O.K, I'm free in the afternoon.〉

문의 : 윤 종 성 (017-723-4977)colyoon@nate.com